

투데이 칼럼

헤라클래스가 필요한 사회

2019년 1월 방글라데시 어느 도시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는 다음과 같은 쪽지가 남겨져 있었다. 나는 000를 성폭행한 XXX이다. 나처럼 죽지 않으려면 조심하십시오. 헤라클래스 사망자는 한달 전 친구 2명과 함께 여중생을 성폭한 주범이었고 여중생의 아버지가 경찰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했으나 미적거리는 사이 여중생은 집에서 살해당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지 한달 뒤, 25km떨어진 곳에서 또 발생. 현장에는 성폭행범이 살해되었고 비슷한 내용의 '헤라클래스' 이름의 쪽지가 있었다. 이때부터 누군지 모를 '헤라클래스'는 국민의 영웅이 되었다. 이렇게 2년간 헤라클래스에 의해 죽은 강간범은 전국적으로



홍민기
수필가

모두 9명. 경찰은 헤라클래스를 잡기위해 혈안이 되었고 수배조차 내렸지만 범인을 증명할 어떤 증거나 목격자도 찾지 못했다. 다만 형사를 자칭하며 피살자를 차에 싣고 간 2~3명의 청년이 있었다는 몇사람의 증언이 있었지만 영웅이 되어버린 헤라클래스가 잡히길 바라는 선한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기에 미제사건이 되어버렸다.

아무튼 헤라클래스를 잡으려는 경찰의 노력, 헤라클래스의 공포 덕분에 방글라데시의 성폭행 사건은 크게 감소하였다. 비교적 여성을 하대하는 이슬람문화에서 이는 획기적인 일이다. 헤라클래스는 그리스 로마신화의 대표적 영웅이자 신이다. 여러 사람을 죽이고도 영웅이 되는 방글라데시의 상황, 이런 사례는 과거 미국 몬테나주에서도 있었다.

강력범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처리에 불만을 느낀 주민들이 자경단을 만들어 범인을 체포, 인민재판식으로 공개처형했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이런 사례는 많이 있다. 결국 경악적 행동과 처벌의 형평성, 사법제도가 아닌 문제로 없어지게 되었다. 국가와 사법기관이 제대로 범법자를 체포, 처벌하지 않거나 오히려 비호함으로써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일은 형편없는 국가와 사회이다. 먼 동남아의 나라, 방글라데시의 사례지만 웬지 다른나라 이야기 같지 않은 공감이 느껴지는 것이 나만은 아닐듯 하다. 잘 사는 나라는 경제적인 부 못지않게 범죄와 무질서가 없는 안정과 평화의 나라이며 헤라클래스 같은 영웅이 필요없는 나라이라.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스타머 총리와 악수하는 '검정 재킷' 젤렌스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오른쪽)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23일(현지 시간) 런던 총리 관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후 양국이 방위산업 공동생산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소의 군복 대신 검은색 재킷을 입었다.

싱가포르 총리와 악수하는 시진핑 주석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 주석이 24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한 로렌스 왕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사설

억대 기부 할머니 박순덕

폐지와 강릉을 주워 번 돈으로 고향인 전북 정읍시에 억대의 장학금을 기탁해 온 박순덕(90) 할머니가 도지사 표창을 받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6월 11일 전주 치명자산 성지 평화의전당에서 '희망 2025 캠페인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박 할머니의 공로를 기렸다. 6남매 중 셋째였던 박 할머니는 아버지가 일찍 작고해 어릴 때부터 살림을 도맡았다. 언니는 일찍 시집을 갔고 어머니와 오빠는 생계를 위해 일하러 나가면서 박 할머니가 동생들을 돌보아 했다. 박 할머니는 "여덟 살이 됐는데도 학교에 가지 못하니 너무 속상했다"며 "또래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평평 울었다"고 회상했다. 박 할머니는 속상한 나머지 길거리에서 연필과 종이를 주

워 동네 어른들에게 글을 가르쳐 달라고 조르기도 했다. 스무 살에 결혼하면서 고향을 떠난 박 할머니는 여전히 배움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아이 셋을 낳고 평범하게 살아가던 박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2017년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폐지와 강릉 등을 주우며 번 돈은 하루 최대 6만 원이다. 그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이어서 매달 100만 원씩 지원받는 다. 자녀 세 명 다 장성했고, 아픈 데도 없어 지원금으로 생활하는 데 충분했다고 한다. 그는 2021년부터 고향에 장학금을 기탁하기 시작했다. 장학금은 재산 일부와 폐지 등을 주워 모은 돈 등으로 마련됐다. 5년간 전달한 장학금만 무려 1억9,600만 원에 이른다. 정읍 칠보면에 사는 학생 168명이 혜택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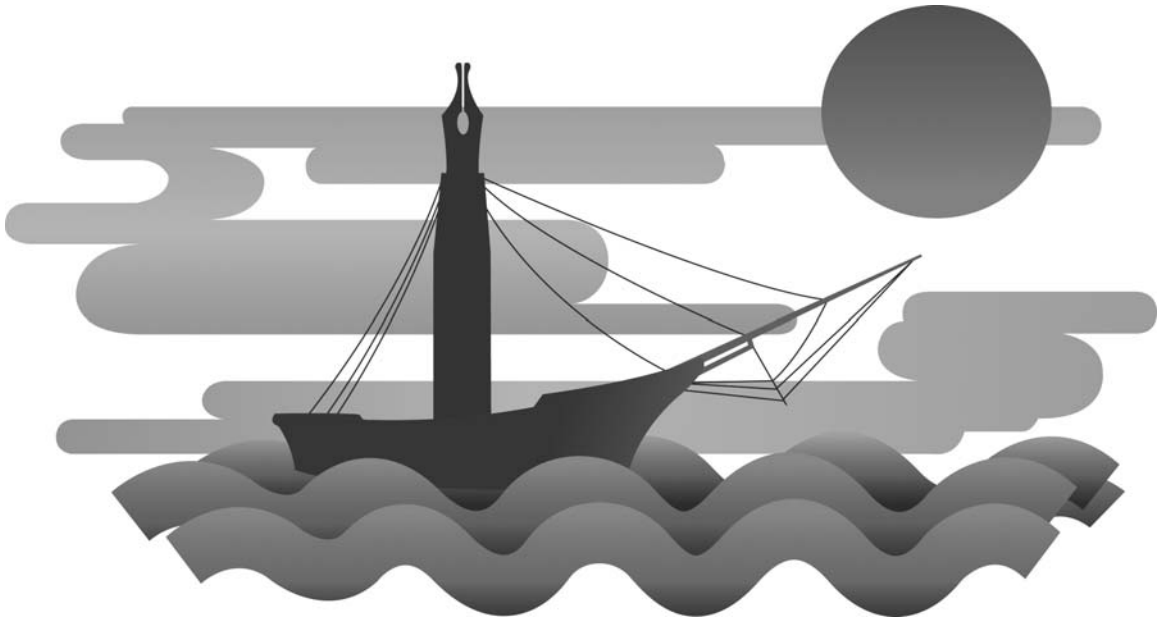
노인회 서천지역 문화탐방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 연합회가 최근 의미 있는 문화탐방을 다녀와 관심을 모았다. 6월 16일 연합회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연합회 간부 등 30여 명이 함께 충남 서천군에 있는 장항 송림산림욕장과 시류리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 흥원항 일원으로 문화탐방을 다녀온 것이다. 서천군 장항송림산림욕장은 여름이면 백문동의 보랏빛 향연이 펼쳐지는 '백문동 꽃축제'가 유명한 곳이다. 걷기 좋은 소나무 숲길과 탁 트인 서해바다 전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산책 코스로 알려져 있다. 참가자들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시류리움'을 둘러보고, 백제 부흥군과 신라·당나라 연합군이 격전을 벌였던 '기벌포 해전 전적지'와 흥원항 일원을 견학했다. 연합회는 이번 문화탐방을 계기로 자문위원과 연합회 임직

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늘리고,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등 도정 협력과 노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한편 김두봉 연합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의 여러 현안과 사업 지원을 위해 앞장서준 자문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노인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니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세계자연유산인 서천 갯벌'과 머리가 맑아지는 싱그러운 숲길에서 함께 하여 더욱 뜻이 깊다"고 말했다. 김영구 자문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적극 협조해 주시는 자문위원들께도 감사한다."며 "향후 서로 소통을 강화하여 노인 분야 지원은 물론 전북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